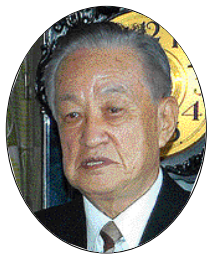
다례茶禮와 예속禮俗



權 兌 遠
도산道山학술연구원장 · 충남대명예교수

한국의 차문화는 모두 사원차寺院茶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차나무는 신라 흥덕왕 때에 대렴이 전한 차종을 처음 심었다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사원 주변에서 널리 자생하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억불책과 아울러 사원에 대한 중세重稅 등은 우리의 차문화를 쇠퇴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 연중행사 가운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연등회燃燈會 · 팔관회八關會를 비롯한 공덕재功德齋 등 불교숭배나 토속신앙을 위한 의식에서 차를 올리는 헌다례獻茶禮는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었다. 그러나 주희朱熹는 무이산武夷山의 무이정사武夷精舍에서 녹차에 의하여 그의 사상을 굳힌 소위 차의 철인이라고 할 수 있고, ‘ 주자가례朱子家禮 ’에 선종禪宗의 헌다식獻茶式을 취하여 유교에 응용하였으며, 한 집안의 주부로 하여금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 헌다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정초 및 추석 명절 등 사당祠堂(家廟)에서 올리는 제향이 다례茶禮라는 칭으로 전승되고 있어 비록 술이나 숭늉(熟水)으로 차를 대신하고 있으나 그 형식만은 분명히 헌다례에서와 같이 ‘ 진다進茶 ’의 명칭으로 전해오고 있다. 결국 주자가례를 받아들여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 조선왕조 때 불교의 헌다식을 제례에 전환시켜 조선왕조 초기까지 술이 아닌 차에 의한 다례가 실시되다가 점차 술 · 감주(酒醴)와 차가 한동안 혼용되었고, 결국 술을 사용하는 ‘ 다례 ’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차의 본산지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녹차만이 정차正茶로 인정이 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원에서 사행이 왔을 때 당시 우리 조정에서 소중하게 여겨왔던 인삼차를 접대하였으나 그들은 이것을 잡차로 여겨서 즐겨하지 않았다. 또한 명明 · 청淸과의 직공職貢을 통한 사행使行과 교역이 있을 때 그들의 접대를 위한 의례적인 ‘ 행다례行茶禮 ’를 비롯하여 불공의식인 ‘ 공다례供茶禮 ’가 왕실에서 행하는 여러 제례祭禮 등에 적용하여 변화하였던 과정이 전해지고 있는 ‘ 조선왕조실록 ’의 사례를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태종실록 ’ 19년 9월 정미조丁未條에,

“‘ 주서周書 ’에 이르기를 ‘ 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 ’고 하였으니, 전부터 제사에는 술을 쓰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조本朝의 선왕 · 선후 기신제忌晨祭(기제사)가 있을 때 모두 무덤 앞에서 술을 땅에 뿌리는 요전례奠禮가 있었는데, 홀로 태조 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과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요전에만 술을 쓰고 그 나머지의 요전에는 모두 다탕茶湯을 쓰니 대단히 예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태조 때 요전의 예例에 의하여 기신제마다 모두 술과 감주(酒醴)를 쓰게 하소서 ”라고 하니 왕은 예조禮曹에서 아뢴대로 따르게 하였다. (太宗實錄 卷32, 太宗 19年 9月 丁未)

라고 하였는데, 조선왕조가 개국한 이후 태조와 태조비 신의왕후의 기제사가 있을 때 묘 앞에서 행하는 요전례 이외에는 모구 술이 아닌 다탕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유 · 불 교체기를 맞아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기준을 두고 있는 유교의식으로 전환이 되기는 하였으나, 재래의 불교의식인 ‘ 공다례 ’가 계승되어 역시 모든 제향에 다탕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종실록 ’ 3년 정월 정묘조丁卯條에는,

당시 금주령이 더욱 강화되면서 예조에서 금주령을 한층 더 경계하여(申飭) 비록 시제時祭(매계절 중월仲月, 즉 가운데 달에 사당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때 차를 쓰고 술은 쓰지 못하도록 청하니, 왕은 제사에 술 쓰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世宗實錄 卷11, 世宗 3年 正月 丁卯)

여기에서도 세종 당시 금주령으로 술에 대한 규제가 엄하여 제향 때도 술사용이 금지된 듯하였으나 조상숭배를 정통으로 하였던 당시 사회에서 연중 가장 소중히 여겨왔던 추수감사를 겸한 10월 상달에 조상신에 행하는 시향에도 역시 한동안 차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사에 차를 바치는 사례는 광해군 때 유충립柳忠立이 다음과 같이 왕에 올리는 글(上啓文)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 광해군일기 ’ 11년 9월 임오壬午條에 유충립柳忠立이 아뢰기를,

“ 신이 별전 친제別殿親祭의 제문이 알맞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향실香室로 가서 각전의 축문에 관한 본보기(祝文儀軌)들을 다 보았습니다. 영숭전永崇殿의 제사지낸 축문에는 ‘ 청작서수淸酌庶羞 ’라고 썼고, 봉선전奉先殿의 축문에는 ‘ 빈조서품브藻庶品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른바 ‘ 빈조브藻(마름 수초水草로서 물위에 뜨는 것과 물속에 가라앉은 것) ’란 곧 차만 쓰고 술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일 동일한 곳에 봉안한 뒤에 한 곳에는 술을 쓰고 다른 한 곳에는 차를 쓰는 것은 예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태묘太廟(종묘)의 4개 실室과 광릉光陵(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에 지내는 큰 제사의 축문에는 모두 ‘ 청작 ’이라고 써 넣었으면서 유독 봉선전 제사의 축문에만 ‘ 빈조 ’라고 쓰는 것은 더욱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관부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光海君日記 卷144, 光海君 11年 9月 壬午)

결국 광해군 시대까지도 태조묘太祖廟를 비롯한 종묘의 중심이 되는 사당은 대부분 제사에 술을 쓰고 있으나, 일부 봉선전과 같은 곳에서는 역시 차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한동안 제사에 차를 올린 실제적인 다례식茶禮式이 이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가에 전해오는 제사절차 중에 무덤 앞에서 지내는 묘사墓祀의 의식을 진행하는 축문祝文(笏記)에 ‘ 진다進茶 ’라고 적고 대신 차가 아닌 숭늉(熟水)으로 대신하는 제사 풍속에도 다례의 유풍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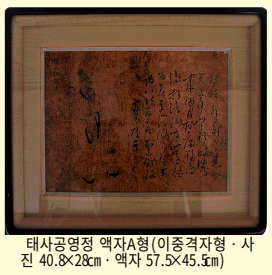
특히 조선시대 광해군 때의 학자인 권득기權得己의 ‘ 만회선생문집晩悔先生文集 ’에 전해오기를,

당시 세속이 차를 즐기지 않으므로 마땅히 점다點茶의 구절이 빠진 것이다. 망일인 보름 제사에는 역시 술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므로 자연 차를 사용하는 것이 없었던 까닭이다. 또한 당시까지 점다하는 풍속이 남아 있어도 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숭늉(熟水)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까지 제사에 차가 사용이 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권문세가를 제외하고는 녹차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드물었다. 대부분이 중국측 사신使臣을 맞이하여 그들이 일상 즐겨 마시는 차로 접대하는 다례茶禮에 주력하였을 뿐이다.

시조 태사공 친필시서영정 봉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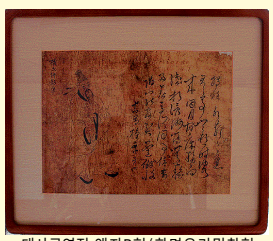
안동권씨의 재사齋舍 · 정각亭閣 · 원묘院廟의 강당 또는 후손 개인의 당헌堂軒에 게건揭虔 또는 봉안奉安할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의 친필시서親筆詩序 영정影幀을 보급합니다.



태사공영정 액자A형(이중격자형 · 사진 40.8×28㎝ · 액자 57.5×45.5㎝)

그동안 저희 종보사에서는 국보급 문화재인 시조 태사공의 위 영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밀을 지키며 나름대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 마련이 안되어 부심을 거듭해오던 중 그 소장자와의 연락마저 끊기고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실물을 슬라이드필름으로 촬영하고 컬러복사해 두었던 영정을 원본크기로 디지털인화하여 후손의 문중과 개인의 당헌에 봉안토록 제작실비로 보급하여 되도록 많은 후손이 시조 태사공의 얼을 몸받도록 확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액자로 표구한 영정은 A형과 B형 2종이고 비용은 A형이 20만원, B형이 15만원입니다.
우리은행 1005-601-070005 (주)안동권씨종보사로 주문입금하시면 제작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고 어디 종중단체를 빙자하거나 전화로 권유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동권씨종보사



태사공영정 액자B형(화면유리밀착형 · 크기는동일)

■ 시조 태사공太師公의 친필시서詩署 영정影幀 해제

실물대로 촬영인화한 이 영정은 당시 어떤 회맹會盟이나 계회契會에서 화원畵員이 열공列公의 전신상을 소사素寫한 여백에 각공이 자필로 율시律詩를 휘호하여 계첩契帖을 만든 것의 한 장이다. 우측 상우上隅에 ‘ 권태사영정權太師影幀 ’이라 쓴 것은 당시 복수인의 영정을 그렸기 때문에 이를 합책하면서 제3자가 식별을 위해 기제記題한 것이다.

오언시五言詩 8행으로 된 이 시는 첫 열에서 글자 한 자리를 띄우고 마지막에서 두번째 자는 지움 표시를 하는 등의 즉사卽事로 속필한 것이며, 말미에 별행으로 ‘ 고창古昌 권행權幸 즉일卽日 ’이라 서명한 것이 명료하다. 즉일이란 당일當日, 즉 바로 그날의 뜻이니 어떤 회연會宴이 있던 당일을 뜻하며 그 날짜 기록은 이 계첩契帖의 표지에 있었을 것이다.

이 영정이 식별인의 안목에 발견된 것은 현재 20여년이 되고 그동안 다방면으로 종합 고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오언시의 해초解草를 지금까지 국내에서 누구도 적확히 해내지 못하고 있고, 신라인 명필 김생金生의 필법과 같다고도 하는 신필神筆인데다 율격과 운자가 고대의 것이다.

②지질紙質에 대한 과거 문화재전문위원의 비공식 감정 결과 용지가 신라시대 불경佛經을 필사했던 유물과 같은 지질과 규격이라는 의견이었다.

③영정의 양식이 고려 중세 이전의 것이고 복식이 고려 이전이며 관모冠帽와 그 배후의 날개가 당唐나라 황제릉에서 출토된 신라인의 토용土俑의 것과 거의 닮았다.

④자필이 아니고서는 남의 성명을 극초서로 쓰는 예가 없고 더구나 성 권權자를 팔분체로 휘갈겨 썼으니 결코 자필이 아니고는 남의 손을 빈 것일 수 없다. 시의 대체적인 내용은 망국후의 실의와 회한어린 적막감을 표백한 것이다.